'오늘은 우리들 세상' 광주·전남 어린이 축제 팡파르

ACC 하우펀·아시아컬처마켓
광주공원 일대 전통문화체험
과학관·박물관·미술관 등 다채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날 연휴에 맞춰 광주·전남 곳곳에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전시·공연부터 체험 프로그램까지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축제 한마당 ACC 광장

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과 4일부터 6일까지 '아시아컬처마켓'이 개최된다. 올해로 10회째를맞는 하우펀은 '도시 따라 지구 한바퀴'를 주제로 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 공연, 체험 등 50여종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어린이문화원 중심으로 △도시관찰자 △도시탐험가 △도시창조자 등 세부 주제에 따른 문화예술체험이 진행되며 어린이극장과 예술극장 극장2에서 각각 공연하는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과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 등 다양한 어린이 콘텐츠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ACC 광장에서는 아시아컬처마켓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상품, 예술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15개국 34개 부스로 구성되며 캄보디아 꽃화관 꾸미기, 중국 전통부채 만들기, 일본 물풍선 낚시, 아시아의 타악기 클래스 등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솜사, 베트남 생코코넛 음료 등 아시아의 특색있는 먹거리도 만나볼 수 있다.

●희경루에서 전통문화 체험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4일 광주공원에 자리잡은 희경루에서 어린이를 위한 체험 및 전통공연을 준비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과 퓨전국악그룹 화양연화의 국악 무대가 펼쳐지고 공연 이후 희경루 문화마실 탐방행사와 광주목 나드리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기와모자 만들기, 희경루 중건을 축하하는 식물식재, 조개부채 만들기, 가족 책갈피 만들기, 아로마 오일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젓가락질 대결이벤트 콩콩팔팔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미술관의 어린이날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4~5일 어린이날 특별이벤트를 연다. '탐정이 되어 미술관에 숨겨진 작품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미술관에 숨겨진 7점의 작품을 찾아 퀴즈를 풀어보는 소장품 연계 미션 프로그램과 다양한 주제로 드로잉을 그려보고 오브제를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또 참여형 공연 2편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친한 친구'를 의미하는 여성 듀오 공연팀 아띠(A-TTI)의 마술, 벌룬 아트, 탭 댄스, 데빌 스틱 등이 어우러진 넌버벌 퍼포먼스 '아띠 인 원더랜드'와 1인 퍼포먼스 공연가 다미르 씨어터의 마술마임 공연 '다미르의 선물'이 있다.

●문화기관 곳곳서 행사·공연

국립광주과학관은 4일부터 6일까지 특별행사 '과학관 어린이세상'을 개최한다. 과학관 전역에서 다양한 공연, 체험, 이벤트 등 8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4월 과학의 날에 이어 특별행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에도 전시관(상설전시관·어린이과학관·인공지능관)을 무료로 개관한다. 특히 매일 3회에 걸쳐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온 가족 즉석사진 촬영과 함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알뜰 나눔장터 △사이언스 플리마켓도 열린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오는 5일 '꿈꾸는 어린이, 오늘은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버블쇼, 벌룬쇼 공연을 비롯해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반짝반짝 금동관 만들기, 문화재 풍선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4일과 5일 어린이날 특별공연으로 예움회 전통연희극 '산중호걸 호랑님의 생일잔치'를 선보인다. 또 부대행사로 카네이션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버블 체험 등을 연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오는 4일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특집공연 '작은씨앗 나빌레라', 가야금 병창 3중주 '동백' 등을 를 선보인다. 기관별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동구 미로센터에서 즐기는 '씨네196'

9월까지 매월 첫 목요일

광주 동구는 5월부터 9월까지 미로센터 2층 미로 가든에서 영화와 클래식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씨네196'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운영되는 '씨네196'은 클래식과 영화의 결합이라는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기획됐으며 모더레이터로 진모영 영화감독(대표작: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이 참여해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씨네 196'에서는 △5월2일(목) '서칭 포 슈가맨' △6월5일(수) '안녕, 미누' △7월4일(목)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8월1일(목) '위대한 작은 농장' △9월5일(목) '아담' 총 5개의 독립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 20분 전에는 매 영화에 어울리는 클래식 공연이 진행되며, 상영 후에는 모더레이터 진모영 감독과 관람객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씨네마 토크쇼'도 준비되어 있다.

진모영 영화감독은 "이번에 선정된 5편의 영화는 독립영화를 보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영화들이다"며 "방문객들이 매월 예술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5개월간의 영화잔치에서 가치 있는 추억들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씨네196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토론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클래식,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예술의 거리에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사전 신청한 일반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미로센터 알림사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로센터(062-608-2136)로 문의.

도선인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5종 체험형 문화상품 준비

국립광주과학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과학문화 상품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과학문화바우처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 중 총 5만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바우처 이용자에게는 1인당 5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5월부터 3개월간 다양한 과학문화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매년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과학전시·체험 3종, 과학교육·체험 2종 등 모두 5종의 체험형 과학문화상품을 준비했다.

과학전시·체험 상품 3종은 기본이용권(통합관람권·특수영상관 3종)과 종합이용권(상설전시관·특수영상관4종·일일교육·기념품), 스페셜이용권(상설전시관·특별전·특수영상관4종·일일교육·기념품)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 상품 2종은 신나는 별빛 과학캠프(1박 2일), 찾아가는 과학스쿨로 이뤄져 있다.

김승민 국립광주과학관 전시운영센터 연구원은 "국립광주과학관이 참여하는 이번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과학문화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과학문화상품 예약 및 과학문화바우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누리집(과학문화바우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ACC, 하늘마당 개방 맞춰 곳곳 새 단장

3~6일 하늘마당 임시 개방
다양한 이미지 표시물 눈길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하늘마당'을 3~6일 임시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하늘과 맞닿은 ACC의 정원인 '하늘마당'은 6986.7㎡규모로 천연잔디가 깔려있는 열린 공간이다.

ACC 하늘마당은 젊은이들 사이에 각종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자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명소로 입소문이 나며 지난해 39만여 명이 찾았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ACC는 하늘마당이 남녀노소 누구나 쾌적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장치 표시물을 설치하고 볼거리 제공과 함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먼저 ACC는 하늘마당 상단에 아이 얼굴 이미지 표시물을 제작했다. 경사진 하늘마당의 특성상 마치 위에서 어린 아이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 표시물은 하늘마당을 오고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쓰레기는 가져가 주세요'라는 직접적인 메시지 대신 '하늘마당 지킴이가 보고 있어요'라는 간접 메시지를 전한다.

ACC는 하늘마당 및 ACC 이용객들의 접근성 개선과 편의를 위해 지상에 입체형 출입구 번호 표시물도 세웠다. ACC에는 총 6개의 출입구가 있지만 부지가 넓고 건물 옥상 전체가 도심 속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출입구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ACC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출입구 번호 표시물을 높게 설치해 숫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먼 곳에서도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돕는 번호 표시물은 스테인리스 소재의 사각형 컬러 칩으로 커다란 숫자를 표현했다. 이는 ACC 건축물의 주요 소재인 스테인리스와 이를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의 외형에서 착안한 디자인이다.

또 ACC는 지하에 위치한 건축물의 특징을 담은 기관명 표시물도 곳곳에 설치했다. 옛 전남도청 부지에 자리 잡은 ACC는 지하에 건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다. ACC는 이러한 건축물의 특징을 담아 'ACC'를 형상화 한 시각 문자를 건물 외부에 새롭게 부착했다. 시각 문자는 지상에서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부'이며, 더 많은 콘텐츠들이 지하에 존재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외에도 ACC는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등 지상 도로 인근에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하고 있는 인물 이미지 표시물을 세워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각 공간을 알림과 동시에 소소한 재미를 선물한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로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자 기획했다"면서 "하늘마당 외에도 열린마당, 상상마당, 아시아문화광장 쉼터 등 다양한 열린 공간들이 있으니 ACC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CC 하늘마당은 연휴 뒤 다시 잔디 생육기간을 가진 후 오는 20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도선인 기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3~6일 하늘마당을 개방한다. ACC제공